

대화감정평가법인 고객 감동의 실현



당사의 이름인 대화는 한자로는 大和 그리고 和를 의미하며, 영문으로는 Great Harmony 그리고 Communication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배경으로 하여 저희(주)대화감정평가법인은 **공정평가**와 **고객감동**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당사의 비전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평가지원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최신평가기술의 도입 등을 통한 **평가의 전문화**와 인터넷기반의 정보관리시스템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혁신**을 이루어 초일류감정평가법인으로 도약함은 물론 고객에게 무한한 감동을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을 최우선시 하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과 규범을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5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공정하고 성실한 신념으로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2007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감정평가사로 지정됐다.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사, 북부지사, 경인지사, 동부지사, 강원지사, 충청지사, 충남지사, 대구·경북지사, 경남지사, 경남중앙지사, 전북지사, 호남지사, 제주지사 등 전국 각지에 본·지사 망을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평가·보상·소송·경매·분양·담보·매각·교환 등 모든 분야의 감정평가와 부동산관리, 부동산 투자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상장 대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180여명의 감정평가사와 380여명의 직원이 연간 수만 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대형 평가법인이다.

부동산의 세계화, 종합화, 증권화 추세에 발맞추어 창조와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해 업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초대형 우량법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지평프라자 201호(☎ 031-905-9008)에 있다. 특화된 사업분부를 통한 업무수행, 업계 최고의 평가 전문가 풀 구성, 업계 최고의 공신력 획득 기관, 고객 최우선 중심의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은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돼 48년간 법정용어로 불렸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보상·담보 감정평가, 경매·소송 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돼 평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화폐단위로 표시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법정 용어가 개정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